



만인의총이 지난 10일 국가관리(문화재청)로 전환되면서 국가적 구국의 성지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등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현판식을 지난 20일 거행하였다.

남원시 만인의총 정비추진

관리사무소 현판식... 내년 계획수립 전시관 등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남원시 만인의총이 지난 10일 국가관리(문화재청)로 전환되면서 국가적 구국의 성지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등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현판식을 지난 20일 거행하였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유재판장 남원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1만여 의사의 열이 서려 있는 남원「만인의총(사적272호)」 참배, 경과보고, 축사, 현판 제막순으로 문화재청차장, 전북도지사, 남원시장, 정치권, 기관, 사회단체, 만인의사 후손, 지역주민 300여명과 함께 만인의총 광장에서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내년부터 만인의총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사적으로 가치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시관 등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국가적 추모와 교육공간으로도 조성하고 만인의총 참배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남원시와 기관 사회단체에서는 국가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서 더욱 값져 보인다. 20여년간 만인의사 추모계승 범시민대회를 개최한 시민단체의 역할도 크게 기여하였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1996년 이후 꾸준히 만인의총의 국가관리를 요청해 왔으나 국가관리 전환사무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2000년 1월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1년 6월 남원시민 1만명 서명 청원서를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전달하는 등 꾸준히

국가관리 승격을 건의해 왔다.

지난해 문화재청장 방문에 따른 만인의총의 직접 관리를 요구한 뒤, 문화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국가관리 전환을 위한 조직신설을 건의하였다.

만인의총은 정유재판 때인 1597년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민·관·군 1만 여명의 열이 서려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함락시키지 못해 패배했다고 판단한 왜적이 5만6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원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맞서 남원성민 6천명, 전라도 병사 이복남이 이끄는 군사 1천명, 명나라 원군 양원이 이끈 3천명 병사 등은 혈전분투 끝에 장렬하게 전사하였으며, 이들의 시신을 한 무덤에 모신 곳이 바로 남원 만인의총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심민임실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현안사업 필요성 설명·지원 요청... 신규사업 적극 반영 건의

심민 군수는 2017년 국가예산 선제적 확보를 위해 주요 간부급 공무원과 함께 정부세종심 군수는 지난 16일 행정부와 안전처를 방문한 이후 지속적인 중앙부처활동을 통해 원활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부처별 예산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

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임실·순창 쌀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명 순환도로 개설 등 농식품 전략산업화와 주민 밀착형 현안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기재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옥정호 수질개선과 맑은물 유지 위한 운암지구 및 운정지구 마을하수도 정

비사업, 섬진강 상류지역 오염요인 제거를 위한 신전지구 및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심민 군수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부처반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대응하겠다"며 "지역현안해결과 주민행복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남원시 '부부의 날' 기념 행사

지리산 프로방스 연회장 에서

남원시는 21일 지리산 프리방스 연회장에서 제4회 부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5월 21일 부부의날을 기념하여 가족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가정의 중심인 부부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하여 올해로 4회째 개최하였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일반가정부부 10쌍, 다문화가정부부 10쌍이 참석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 문화 확산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밝고 희망찬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희 감사가 건 강한 소통을 위한 부부대화법으로 "同苦同樂"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참석한 부부들은 강의 내내 이구동성으로 '아는데 안 되고요'라고 앞다투어 이야기를 했다. 이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반려자에게 사랑의 의미를 담아 세상에 하나 뿐인 반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연제나 첫 마음으로 돌아가지'라는 반지의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첫 만남, 설레임을 생각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만든 반지로 즉석에서 포토포즈 이벤트를 통해 감동의 순간을 재현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예비창업자 블로그마케팅 교육 대상자 모집

고창군이 예비여성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블로그마케팅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역 내 장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 참여 희망자를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강의는 오는 6월 8일, 10일, 13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고창군 여성회관 컴퓨터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으로 군 단위 지역 예비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역량강화와 함께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강의에는 말강커뮤니케이션 이태훈 대표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해 블로그와 SNS제작 및 운영, 사진촬영 및 동영상 제작기법 등 창업에 관한 다양한 마케팅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찾아가는 블로그마케팅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여성회관(560-80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고창군에서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치안협의회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 전순홍 고창경찰서장, 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지역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군청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사업 등 군청 현안 설명과 치안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한 고창만들기 등 현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는 관내 기관장 등 20명의 위원들이 지역의 범죄 예방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청소년 어울 한마당 개최

고창군에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어울 한마당이 개최됐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고창군과 고창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서영주) 주관으로 마련된 '2016 고창 청소년 명품 어울 한마당'은 21일 고창읍성 앞 야외공연장에서 지역 청소년,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어울 한마당은 '구(Good)찌(知)'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맘껏 발휘하면서 건전한 공연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기획·진행됐다.

이날 걸스퀸합창, 방송댄스, 대중가요, 락 밴드, 어쿠스틱밴드, 마술,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 팀과 초청 팀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외에도 노래, 춤 등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즉흥 장기자랑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임실군은 '2016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6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군정 현안에 관한 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시책 등이다.

이에 따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성수왕의 숲 조성사업, 향토건강식품품종화 사업 등 26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군 홈페이지에 사업목록과 함께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공개해 관리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배수개선사업 52억원 확보

남원시가 배수개선사업 52억원(국비 52억원)을 확보해 섬진강 상습 침수 지역 해결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대강면 사석리, 방동리, 방산리, 신덕리 4개 지구에 소재한 침수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 됐다.

방동지구는 장마 또는 국지성 호우시 섬진강의 수위상승으로 기존 배수로의 단면부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상습적이 침수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조속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방동지구개선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배수로 약3km, 배수문 5개소, 복토5ha를 정비해 총82ha의 침수피해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는 배수개선지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국비 확보에 매진한 결과 국비 확보하는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업무연찬·친절교육 실시

임실군은 민원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21일 실시했다.

먼저, 업무연찬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와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여권연장근무제, 재외국민 자동차 소유자 변경 등록 안내 등 올해부터 시행한 민원시책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친절교육은 조옥선 민원봉사과장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방법 강의를 청취했으며, 참석자들은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서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을 위해 최문석 미술강사를 초빙해 '언어미술로 민원인을 감동시키는 방법과 실제미술 배우기 및 모악산 산행을 실시,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